

한국·중국 상류주택 남성공간의 유교적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fucian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for Men on the Upper-Class House of Korea and China

윤일이*
Youn, Lily

Abstract

This comparative study on the confucian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for men on the upper-class house took two approaches. Firstly, even though Korea and China accepted same Confucianism, they developed their own Confucian cultures and differentiated house types. Therefore, the process of developing various type of house can be observed as to adopting Confucianism. Secondly, identification of each country can be appeared by looking into the house developing process. Preceding studies about traditional houses of Korea and China usually focused on style analysis. However, this study approaches to house arrangement through understanding the base of each culture and people.

Keywords : Confucianism, the Upper-Class House, Sarang-chaе, Jung-bang

주요어 : 유교, 상류주택, 사랑채, 정방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새로운 건물 유형의 창조는 사회적 상황과 관련되며, 그것은 또한 문화적 분위기의 문제이기도 하다. 조선사회는 16세기를 즈음하여 유교사회로 안정되면서 유교적 특성들이 건축에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鄕校, 書院, 書堂 등의 새로운 건축유형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변화에 보수적인 住宅에서도 유교화가 진행되어 우리 전통주택의 근간을 이루었다. 즉 유교의 수용으로 주택에서 가례를 위한 공간이 형성되고 성리학을 신봉하는 남성들의 공간이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을구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학의 수용이 처음에는 중국 유학을 기본으로 해서 점차 한국화했던 것처럼, 주택에서 유교공간도 중국의 모습을 이상형으로 삼지만 우리나라만의 독자성을 만들어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유교라는 하나의 씨앗이 유사한 문화기반을 가진 韓國·中國에

도입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주택양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유교의 도입은 전통주택의 전체 구성을 재편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집을 대표하는 대외적 공간인 남성공간¹⁾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일례로 奉祭祀와 接賓客을 중시한 조선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상류주택 사랑채는 손님을 접대하고 의례가 행사되는 등 사회적 교류가 많이 이루어졌던 장소였다. 또한 사랑채 구성에는 선비의 이상향이 묻어나고 뛰어난 장인들의 솜씨가 발휘되었기에 조선조 시대정신이 드러나는 주거문화의 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중국의 전통주택에서 유교 도입에 따른 남성공간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은, 거시적으로는 외현적 문화요소에 반응하는 양국의 차별적 거주문화에의 접근이고 개별적으로는 조선시대 사랑채의 건축특성을 통해 유교의 토착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1) 한국 전통주택에서 남성공간은 사랑채로 명확하지만 중국 전통주택에서는 그 구분이 어려우므로, 공간보다는 기능을 중시하여 남성공간의 범위를 가장이 생활하면서 접객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한정한다.

*정희원, 동명정보대학교 건축학과 전임강사, 공학박사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한·중 상류주택에서 남성공간의 유교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比較論의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또한 주거의 다양성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文化相對論을 참고한다.²⁾ 그리고 연구범위는 시대, 계층, 주택, 형태 4가지를 한정하여 접근한다.

첫째, 시대범위는 양국에서 유교가 도입된 시기는 오래되었지만, 한국은 朝鮮時代(1392~1897)에 접어들면서 일상생활과 건축에 직접적인 변화가 일어나므로 이 시기에 해당하는 중국의 明·淸時代(1368~1912)를 선정한다. 둘째, 유교는 정치원리로 뿌리내리게 되므로, 계층 범위는 상류계급인 중국의 紳士, 한국의 兩班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들은 시대적·사회적 배경아래 자신의 이상과 이념을 건축으로 구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대상주택은 상류계급이 거주한 중국의 四合院과 한국의 班家를 선정하였다. 넓은 지역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전통주택 중에서, 사합원은 漢族의 대표적인 주거형으로 공간구성의 원리를 유지해왔으며, 조선에서는 지배계층인 양반이 거주하는 반가가 유교적 주거규범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³⁾

넷째, 형태 범위는 家長을 중심으로 한 남성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생활로 한정하였다. 유교는 禮樂秩序라고 하여 실천적 행위규범이 공간에서도 표현되므로 주택 내 남성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외부인·조상·자연과의 만남을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택 전체의 분석보다는 유교가 도입되면서 변모하는 남성공간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⁴⁾ 이는 차별적 환경에서 유교수용의 다양한 전개를 살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II. 유교도입과 전통주택

1. 유교의 도입

思想은 한 민족의 文化를 구성하는 핵심으로 다른

문화에 대해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중국은 역대로 많은 사상가와 유교가 출현하는데, 그 중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유가사상이다. 유학은 기원전 6세기경 공자에 의해 전대의 고서가 정리되어 五經으로 편찬되면서 체계성을 확립하여, 중국뿐 아니라 동양의 주된 사상의 하나가 되었다. 도덕적 품성을 강조하고 개인적 수양의 방법론적 문제에 집착한 결과 소수 엘리트 집단에게는 핵심사상으로 통용되었다.

유교의 영향 아래서, 중국에서는 조상숭배와 가족제도가 현저했고, 지식인에게 유교교육은 학문, 출세와 지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있던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처음으로 유교가 도입되고, 조선 건국시 주자학을 중심으로 한 신유학을 국교로 삼아 上記의 특성들이 자리 잡는다. 그렇지만 뒤늦게 우리나라에 수용된 신유학은 발생지인 중국에서보다도 더 오랜 기간, 더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지배사상으로 존속하게 된다.

2. 사회구조 및 신분제도

한·중 근세사회는 士農工商으로 분리된 엄격한 신분질서를 유지하였고, 최고의 지배층은 士계층으로 중국에서는 紳士를 한국에서는 兩班을 가리키며, 공통적으로 文臣들이었다.

중국의 紳士層은 왕권중심의 중앙집권적 정치제도를 위한 과거제도를 통해 신진관료계층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대부분 지주층으로 요역을 면제받고 지위를 보장받는 등 공인된 정치·경제·사회적 특권과 힘을 지녔다. 그들은 사회규범 및 인간들 상호간의 규율 등을 제공하는 유교이념에 입각한 윤리체제의 수호자이자 그 대표자였다.

조선의 양반은 관료가 되거나 관료예비군으로 행세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토지소유자였으며 사회적으로 지방사회의 지배자였다. 유교정치에 있어서 치자는 사서오경을 탐구하여 仁義禮智의 사덕을 체득한 자가 이상적 인간상으로 인정되었다. 치자와 피치자의 기준과 한계가 유학의 수득여하에 달려, 그 결과 양반과 양인의 신분차별은 크고 무반이 폄시되는 문반 우위의 사회가 되었다.⁵⁾ 그래서 신사와 양반은 그들의 주거를 성리학 수양의 도장으로 의도하여 유교적 질서를 내재하였다.

2) 한상복(1985), 『文化人類學概論』, 서울대출판부, p.20.

3) 윤일이(1999), 『조선후기 상류주택 사랑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논, pp.5~8 : 이때 반가는 계층적으로 유교적 사유에 기반을 둔 사대부층과 향반층의 주택을, 형태적으로는 ㅁ자형, ㄷ자형을 대상으로 한다.

4) 유교도입은 민가에 비해 상류주택에서, 여성공간에 비해 남성공간에서 상대적으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3. 가족 제도

한·중 상류층은 대가족제와 함께 가부장제를 기본으로 하였다. 그러나 세분하면 중국은 확대가족 한국은 직계가족으로, 가족구성원에 따른 주택의 배치와 평면에 차이를 가진다.

중국은 송대 이래로 宗族이 산발적으로 조직되었다. 부계주의, 유교의 친족유대에 대한 존중, 토지소유 경제, 지방결연의 정치적 효용성은 모두 친족원들이 힘을 합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였다. 지식인들의 존재도 종족의 형성을 부추겼는데 그들은 족보를 편찬하거나 조상제사를 위한 사당을 지었다. 중국의 가족은 확대가족의 원형으로, 지주·관료 등의 부유계층은 식구가 수십 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상속은 재산상속에서 자식간의 균분주의를 취하고 가장권과 제사권도 분할하여, 조상에 대한 제사가 우리나라와 같이 중요하지 않다.

조선은 17세기를 전후하여 가족·친족제도상에 광범위한 변동이 있었고, 이러한 변화는 재산상속, 제사상속, 양자제도, 족보의 기제양식, 혼인거주규칙(婿留婦家) 등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났다. 재지양반층의 경제력의 저하와 더불어 재산상속의 형태는 남녀균분상속 → 남자균분상속 → 장남우대상속으로 이어진다. 제사상속도 長子奉祀로 이어지는데, 종자의 제사상속은 후손들이 분할하거나 율제할 경우보다 당내를 하나로 뭉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⁵⁾ 장자를 우대하는 것은 봉제사 접빈객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직계가족을 구축하는 상속제도이다.

4. 남성의 사회적 역할과 위계성

동양 삼국이 생활이념의 근간으로 삼아온 유교는 禮治主義를 정치이념과 사회질서의 근본으로 하였으며 특히 가족을 教化의 단위로 여겼고 이의 주체는 家長이었다.

한·중은 공통적으로 가부장제 사회로, 가족에서 가장 우선되는 통제권은 父權이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는 가족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에 대해 지도와 보호의 책임을 갖는다. 또한 가장의

중요한 권리중의 하나가 집을 대표하는 것이다. 한·중의 가족은 가족중심적 사고로 외부사회에 대하여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가장은 외부의 손님을 접객하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여, 남성공간은 외부인에게 개방되는 반공적 성격을 띤다. 그리고 가장권에 속하는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가 제사를 행하는 것이다. 제사는 家를 계승시키는 상징이며 제사를 통해 가족의 영속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한·중 전통가족에서 가장의 지위는 절대적인 것이었고, 주택 내에서도 가장의 거처는 위계가 높았다.

III. 중국 · 한국의 상류주택과 남성공간

1. 明·淸시대의 상류주택

1) 四合院의 공간구성

漢族 주거의 기본인 북방의 사합원은 독립된 횡장방형의 4동이 중정에 있는 원자를 둘러싸는 것을 부르는 것이다. 사합원 형식의 주거는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북경뿐만 아니라 중국전역에 분포하고, 각 지방의 자연환경·풍속·관습에 대응해서 다양한 변형이 발생했다. 중국인의 주거관이 반영된 사합원은 중정 중심의 내향적 구성, 좌우대칭의 축적 구성과 위계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⁷⁾

북경시가의 큰 도로를 따라 들어선 胡同에 면한 사합원 주택은 宗法禮敎의 지배 하에서 남북 종축선으로 따라 대칭으로 배치한다. 동남의 모서리에 위치한 대문을 지나 影壁이 있는 前院의 남쪽 건물에는 통상 客房, 書塾, 창고, 하인방 등이 있다. 종축상의 垂華門을 지나면 원자에 이르고, 원자의 북쪽에 있는 正房은 윗어른 내외의 거주지이고, 동서의 廂房은 아들가족의 거처이다. 때때로 정방의 좌우에는 耳房과 小跨房이 부가되고 후면에 후조방을 두었다. 주택의 사방에는 벽과 담을 둘러 폐쇄적인 반면, 원자 주위에는 회랑을 두르고 중정에는 꽃나무를 심거나 분재를 진열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사합원은 원자가 하나인 1進에서 3~5進까지 규모가 다양하였고, 규칙적인 공간구성으로 禮와 道를 근본으로 했던 선비들과 관리들이 선호하였다.⁸⁾

5) 김미나(2003), 『近世 韓·中·日 上流住居의 境界意識에 의한 空間構成 比較』, 부산대 박논, pp. 5-6.

6) 안호룡(1990), 「조선초기 상계의 불교적 요소」, 『한국고·중세 사회의 구조와 변동』, 문학과 지성사, pp.91~125.

7) 曹火弔(2002), 『中日居住文化』, 同濟大學出版社, p.3

8) 손세관(2001), 『넓게 본 중국의 주택(上)』, 열화당, pp.4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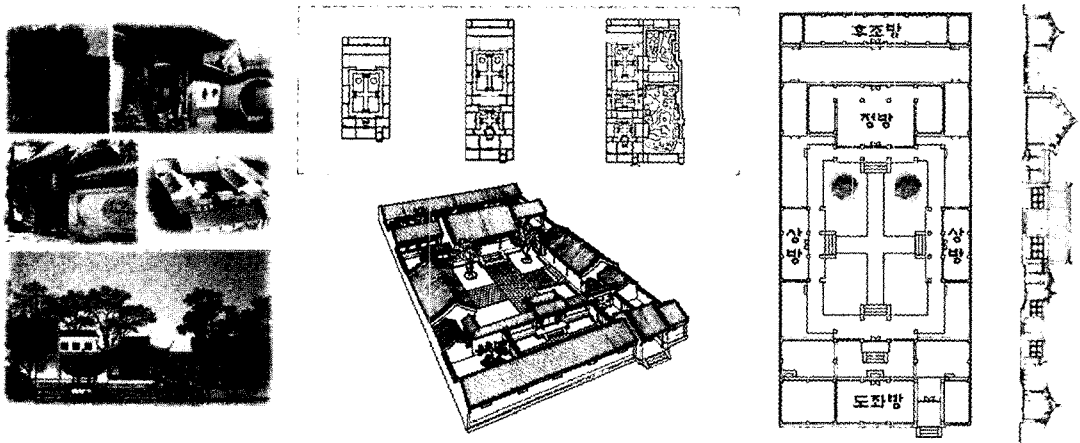


그림 1. 중국 사합원의 공간구성

2) 四合院의 남성공간

사합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접객을 살펴보면, 집안의 최연장자가 거처하고 가족의 거실이면서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관혼상제를 치르는 正房에서 접객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곳은 네동 중에서 가장 중요시되어 높은 지붕, 남향, 품위 있는 장식으로 주택의 실질적 상징적 중심임을 표현했다. 중정이 두 개 이상인 주택에서는, 앞쪽 중정에 자리하는 정방을 廳房으로 구분한다. 남자주인이 낮에 기거하는 거실 겸 서재인 동시에 접객공간, 관혼상제의 공간으로 정방의 대외적 기능이 분리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구성원리인 前朝後寢에 따라 주택의 전면에 접객·의례 공간을 배치시킨 것이다. 청방까지는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반면, 청방 후면은 가족의 일상생활이 전개하는 사적 공간이다. 통상 중심축상에 있는 통로는 주인과 손님을 위한 것이었고, 하인들과 여인들은 별도의 통로인 피농을 이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대형의 사합원에서는 주택부의 측면에 자유롭고 변화있는 원림을 조성하여 서재, 茶室, 그리고 연회장인 花廳을 두어 주인의 여가생활과 접객을 위한 별도의 장소로 사용하였다. 즉 사합원에서 접객은 가족의 공적공간인 정방에서 이루어지고 큰 규모에서는 대외적 공간인 청방을 따로 두지만 정방의 중요성은 유지되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집안의 번성을 위해서 조상의 제사를 중시하여, 일찍부터 제사시설이 형성되어 왔다. 『禮記·曲禮』에 보면 '군자는 궁실을 건축함에

있어 중묘를 가장 먼저 짓고, 마굿간과 창고를 그 다음에 짓고, 자신의 거실을 맨 나중에 짓는다'라고 하여 종족단결에 큰 의미를 가지는 제례를 중시함을 알 수 있다. 중국의 황실은 宗廟, 유력가족은 家廟, 서민은 집안의 주실에 제단을 설치하였다. 제단에는 위패가 모시고 거기에 조상의 영이 거한다고 여겼다. 의례공간도 陰陽二分論에 근거하여 좌우대칭으로 배치하였다. 사합원에서는 정방의 중심인 祖堂에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으며, 가족의 대소사도 항상 이곳에서 행했으므로 모든 일을 조상과 함께 하는 친근감을 표현했다.

2. 조선시대의 상류주택

1) 班家の 공간구성

조선시대 반가는 풍수지리와 유불선의 사교가 조영에 영향을 미쳐서, 대부분 배산임수의 대지와 口字形 주택을 선호하였다. 주택의 영역은 보통 사당채·안채·사랑채·행랑채의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주택의 영역은 유교원리인 聖俗의 구별에 따라 사당채와 살림채, 上下에 따라 본채와 행랑채, 男女에 따라 안채와 사랑채로 분리되었다. 안채는 가족중심공간으로 상징적인 장소이지만 조선중기에 접어들면서 씨족·동족중심의 종법제도가 정착되면서 남성공간인 사랑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때 사랑채는 가장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에 따라 그 규모와 성격이 다양해진다. 대부분의 상류계급인 양반은 성리학을 신봉하는 학자들로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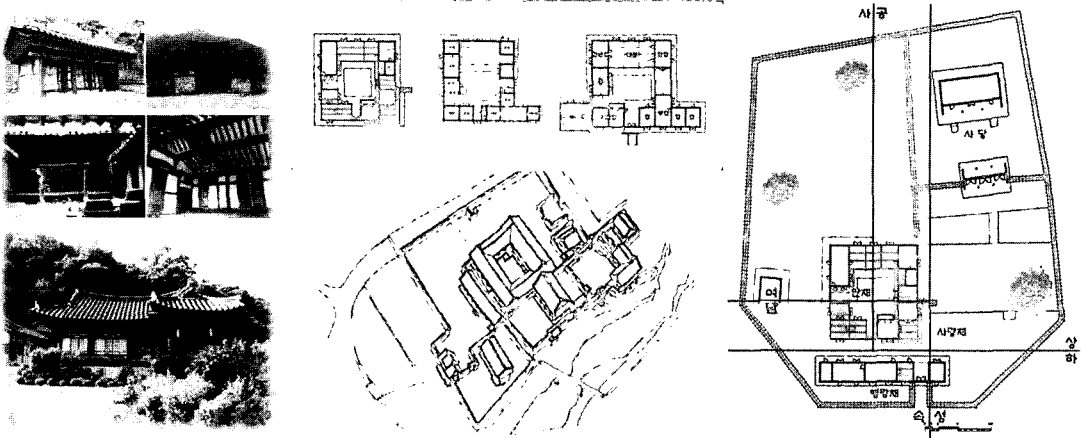


그림 2. 한국 반가의 공간구성

들의 주거를 성리학 수양의 도장으로 의도하였고 풍류를 끌어들이고 씨족·동족 촌락에서 행사되는 의례공간까지 겸하였다.

그래서 반가에는 효의 실천덕목으로 조상숭배공간인 사당의 존재와 위계성, 남녀유별에 의한 안채와 사랑채 구분, 가장의 성격에 따른 사랑채 공간의 다변화 등으로 유교적 특성이 한국화하였다.

2) 班家の 남성공간

조선시대 유교의 도입은 성리학을 신봉하는 남성이 주도하면서, 유교화 양상이 주택 전체뿐만 아니라 남성공간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16세기는 각 지방의 사대부들이 정계에 진출하는 한편 본격적인 향촌의 지배세력으로 자리잡는 시기로, 성리학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실천에 힘을 기울여 자신들의 거주공간인 사랑채를 수양공간으로 의도하였다. 사랑채, 서재, 정자, 제청 등 남성공간의 확대를 통해 단순히 생활을 위한 집이 아니라 성리학적 사고를 키우고 자연과 융합할 수 있는 장소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사적인 修養空間에서 제자를 가르치는 講學空間으로 성격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사랑채는 접객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조선시대 接賓客은 五禮의 하나로서 반가의 사회적 지위나 성격상 특히 중요한 일로 간주되었다.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는 사랑채로, 중기이후 家중심에서 家門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집안 내에서 남성공간과 접객공간으로 비중이 커졌다. 가장의 정치적·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랑채가 안채보다 더 크기도 하고 마을·동

족 내에서 위계성을 가졌다. 그래서 사랑채는 생활과 접객을 동시에 수용하기 위하여 안채와는 일정한 물리적·시각적 거리를 유지하였고, 측면마루가 선호되고 다양한 창호로 유동적인 공간과 내·외 연속성을 확보한다. 또한 누마루를 덧붙이거나 다양한 별당을 건립하고 주변에 연당과 정원을 조성하였다. 이것은 상류주택의 계층적 위계를 표시하는 좋은 수단이 되었다.

더불어 의례성격이 더해진다. 고려말부터 설치되던 家廟는 이후 주거와 생활에서 변화의 싹으로 자리하여, 奉祭祀는 接賓客과 더불어 양반의 班格을 과시하는 것으로 정착되어간다. 더욱이 중기이후 유교의 강화는 喪禮와 祭禮라는 형식을 통하여 종족의 결합을 이루고 중앙관료를 견제하였기에, 명문가일수록 家禮의 범칙은 구체화되고 행사도 격식을 갖추어 간다. 새로운 주생활은 주양식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변형이 터부시된 안채는 폐쇄성이 점점 짙어져 상류주택일수록 대외적인 생활의 중심이 사랑채로 이동되어간다.

사랑채가 의례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은 사회적 공간과 종교적 공간의 통합을 의미한다. 의례 장소가 가족의 사회적 공간인 ‘안채청’에서 외부인과의 사회적 공간인 ‘사랑채’로 이행되는 것은, 의례가 가족의 범주에서 친족과 동족부락내의 결속과 강화의 범위로의 확대를 의미한다.⁹⁾

9) 윤일이, 앞책, pp.261~262

IV. 중국·한국 주택 남성공간의 비교

1. 중·한 주택 남성공간의 건축적 특성

1) 남성공간의 배치와 구성

인간은 자신의 환경을 소유함으로써 실존공간의 위계적 단계를 이룬다. 중국과 한국은 오랜 역사기간을 통하여 유교가 문화전반에 뿌리내리고 있어서 상류주택의 배치에는 유교적 실천인 장유유서, 부부유별 등에 따라 가장과 가족, 남자와 여자, 주인과 손님이 출입할 수 있는 방이나 정원 등의 공간이 엄격히 구별되었다.

중국의 사합원은 대칭형을 이루며 가정의 위계를 반영한 건축군체의 조합으로 정방, 상방, 도좌방 등 건축물간에 주종관계가 분명하고, 명확한 동선을 가지고 있다. 가장의 공간이며 의례·접객 공간인 正房과 廳房이 주택중심부인 남북축 위에 배치되어, 前朝後寢에 따른 점진적인 위계 질서를 이룬다. 이때 청방이 분리되더라도 정방을 더 중시하여 접객의 사회적 기능보다는 가족 내 가장의 역할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반가는 유교의 도입으로 중국의 주택을 이상향으로 삼지만 우리 고유의 주택을 형성해 나간다. 주택형은 ㅍ·ㅊ·ㅊ 자형으로 대칭을 유지하면서도, 동북에 배치된 사당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구성과 경사지, 온돌의 사용으로 일부가 비대칭적으로 변모한다. 그리고 남녀구별을 우선하여 살림채는 안채와 사랑채로 엄격히 구별되는데, 사랑채는 폐쇄적인 안채와는 달리 개방적이며 외부에 가까운 주택 전면에 배치되어 대외적 기능을 수하면서 점점 더 중시되어간다.

확장시에 사합원은 남북의 종축방향으로 院落을 추가하는 원칙이 지켜져 대칭을 벗어나는 파격적인 변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 반가는 ㅊ자형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랑채 영역에 채를 덧붙이거나 별동을 건립하는 등 결합방식이 자유로워서 집집마다 다양한 구성을 이룬다. 즉 확장에서 정방은 주택내 중심점을 유지한다면 사랑채는 원심적 성향을 가진다.

주택의 영역구성에서 사합원은 남자하인·손님공간 → 주인공간 → 여자하인공간의 순으로 입구에서부터 공적·반공적·사적영역을 이루며, 주택의 중심에 가장공간이 배치되어 중심을 주변보다 중시하는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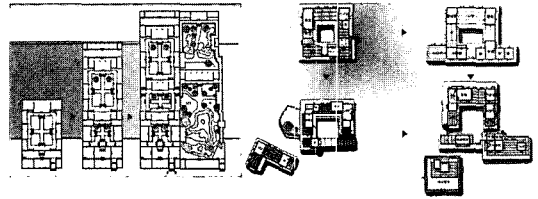


그림 3. 중·한 전통주택의 확장

요적 구성이다. 반가는 행랑채 → 사랑채 → 안채 → 사당채의 순으로, 전면에서 후면으로 갈수록 下에서 上으로, 男에서 女로, 俗에서 聖의 공간으로 배치되어 안채와 더불어 사랑채를 중시하는 다핵구성을 이룬다.

사합원의 기본단위인 청은 횡장방형의 一字형으로, 공적공간인 堂과 사적공간인 臥室이 외실·당·와실로 소위 一明二暗의 공간구성을 이룬다. 정방과 청방도 3칸, 5칸의 대칭적 형태를 취하는데, 이는 과거 봉건시대의 엄격한 질서가 적용된 결과이다. 외벽은 목조와 벽돌조이고 내부에는 세밀한 문양이 가득한 칸막이로 공간을 구분하지만 전체적으로 폐쇄적이다. 반면 사랑채 구성은 사랑방과 사랑대청을 기본으로 측면마루형이 선호되어 비대칭적이다. 벽체는 주택 내에서 가장 많은 창호를 두었고 간 사이에 들개열문을 두어 필요시 공간을 하나로 통합시키기도 하고 내외부를 연결하는 등 반개방적이다.

2) 남성공간의 기능과 의미

중·한의 양국은 다같이 유교를 받아들이고 가부장제로 남성공간이 중시되지만, 유교도입의 양상과 가장의 성격 차이로 주택구성과 마을구성이 달리 나타난다.

첫째, 유교 도입의 양상에 차이를 가진다. 중국은 仁을 중시하여, 주택내 일정한 관계 즉 4개의 동으로 구성된 원락을 중심으로 하는 규범적인 조영원칙 하에서 정방이 주택중심에 자리한다. 한국은 孝를 중시하여, 주택내 사당의 존재가 중시되었고 이에 따라 사랑채에 의례의 성격이 부가되었다.

둘째, 신사, 양반이라는 상류계층의 성격차이로, 중국은 가족공간 중심에 접객장소가 위치하고 한국은 여성공간과 분리된 남성공간 내에 접객장소가 자리한다. 더불어 신사는 접대시 연회를 베풀고 文才를 겨루어 연회장과 정자 등을 별도로 지었고, 양반은 詩作과 講學을 즐겨하므로 정자와 서재 등을 조영하였다.

셋째, 중·한 남성공간의 성격을 비교해보면, 중국의 정방은 가족의 공적공간, 접객공간, 의례공간을 겸하며, 확장시 일부 기능이 중축상의 청방으로 분리되지만 가족내 중심공간의 역할이 크다. 한국의 사랑채는 남자가족의 생활공간, 접객공간이고 때때로 의례공간을 겸한다. 확장시에는 접객의 성격에 따라 책을 읽고 강학하는 서당, 풍류를 즐기는 정자, 의례를 행하는 제청 등으로 다양하게 분리되어 사랑채는 가족보다는 대외적 공간으로 더 중시되었다.

넷째, 중·한 상류주택의 남성공간은 집안을 대표하며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져 마을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도시에 일률적으로 구획된 가로 내에 주택이 자리하고, 주택 중심에 정방이 자리하여 도성내 궁전처럼 위요적 구성이다. 한국은 혈연으로 구성된 씨족마을을 이루어 종가를 상위 또는 중심으로 지가들이 자리하는 위계적 구성을 이룬다. 제례가 중시되는 마을에서 사랑채는 주택전면에 자리하며 열린 사회공간으로서 자리하였다. 즉 정방은 주택내 구심점으로서 사랑채는 마을내를 연결하는 결절점(Node)으로서 자리하였다.

2. 중·한 주택 남성공간의 禮制的 秩序

유교는 禮樂秩序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禮는 인식 원리가 아니라 실천적 행위규범으로서 인류관계와 사회정치적 관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규범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은 공간상에서도 표현되므로, 한·중 전통주택의 남성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외부인, 조상, 자연과의 관계로 살펴본다.

‘가족과의 만남’을 살펴보면, 중국의 주택은 음양과 유교적 질서에 의한 규칙이 명확하게 자리잡고 있다. 각 세대는 동으로 구분되고, 동 내에서는 당과 와실로公私가 구별되고 각 와실은 男女로 구분된다. 즉 주택은 세대별>공사별>남녀별로 구분되고, 원자와 당은 건물간 와실간의 완충역할을 하였다. 조선의 반가도 聖俗에 따라 사당과 살림채로, 살림채는 다시 남녀유별에 따라 안채와 사랑채로, 각 채는 공사구별에 의해 마루와 방으로 나뉘고 다시 장유유서에 따라 큰사랑과 작은사랑으로 분리되었다. 즉 반가는 남녀별 > 공사별 > 세대별로 분리되었고, 안마당과 마루는 남녀간·세대간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매개공간이다.

중국은 세대구분을 우선시 하였고, 한국은 남녀구분을 중시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의 정방과 청방은 가족공간의 중심인 중축 상에 자리잡고, 한국의 사랑채는 안채와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외부에 가까운 전면에 자리하였다. 양국의 주택에서 중국은 중용적 구성으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사당을 중시하고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되어 종교적·의례적인 특성이 강하다고 하겠다.

‘외부인과의 만남’을 살펴보면, 사합원에서 정방의 조당이 가족의 공적공간·접객공간·의례공간을 겸하다가, 규모가 커지면 별도의 접객공간인 청방이 전면부에 조영되어 가족공간과 접객공간이 분리되었다. 이때 손님은 가장이 허락하였을 때에 청방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조선의 반가에서 사랑채는 남성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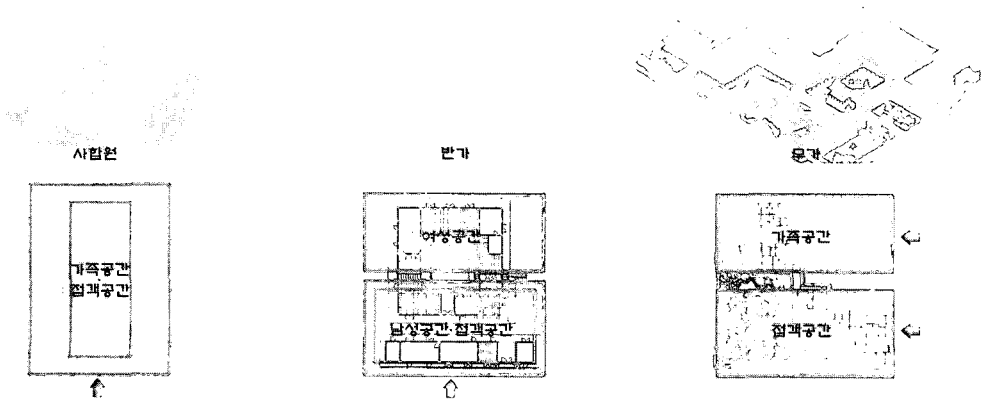


그림 4. 중·한 주택에서 외부인과의 만남

의 생활공간·접객공간으로 꾸며졌다. 그래서 사랑채는 가족과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차단장치를 두면서도 접객을 위한 풍류적 구성을 추구하였다. 남성공간은 기능에 따라 사랑채, 별당, 서당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고 손님은 사랑채까지만 진입할 수 있었다. 남성공간 성격이 중국은 가족생활·접객 공간을 겸한다면 한국은 여성과 분리된 남성생활·접객 공간이라는 차이를 가진다.

‘조상과의 만남’인 제례를 중시하는 것은 양국이 공통적이지만, 가계계승의 방법에 따라 주양식과 수행태가 차이를 드러낸다. 중국은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조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셨고, 유력가족은 가묘를 만들어 의례를 행하였지만, 재산의 균등분배와 제사의 순환으로 종가라는 개념이 약하고 주택들은 균등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조선시대는 장남우대상속을 통하여 종가를 중심으로 씨족마을이 형성되었다. 이때 제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주택 구성도 사당을 상위로 하는 위계적 구성으로 사랑채는 사당에 근접되어 지어졌다. 특히 종가에는 제사공간으로, 별도의 제청을 두거나 사랑채가 제청을 겸하기도 하여 상징적·의례적 의미를 가진다.

‘자연과의 만남’을 살펴보면, 동양의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일치를 추구하였다. 중국의 정원은 직선이 거의 사용되지 않은 자연적인 이미지를 추구하여, 유교풍의 주택과 달리 도교풍의 특색을 드러낸다. 반면 조선의 반가에는 사랑채 근처에 수양과 접객을 위해서 정원을 구성하는데, 방지와 조산을 조영하고 개념적으로 자연관을 확대하여 중국보다 더 유교적인 분위기를 갖는다.

정방은 전면만 개방된 폐쇄적 구성이고, 사랑채는 측면마루형에 많은 창호로 반개방적인데, 이는 기후에 따른 특성이기도 하지만 자연과 교류하고자 하는 차별적 자연관의 반영이라고도 하겠다.

V. 결 론

유교라는 하나의 씨앗이 유사한 문화기반을 가진 중국에서 한국에 도입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 중 상류주택 남성공간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동일한 유

교적 특성을 내재하면서도 중국과는 다른 우리나라만의 건축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사합원에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대청구성, 축적구성, 위계적 구성, 위요적 구성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한국의 반가는 이를 바탕으로 사당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구성, 안채와 사랑채의 엄격한 구별, 온돌의 사용 등으로 비대칭적 성향을 나타내 한국만의 특색을 만들었다.

2. 중·한 상류주택의 남성공간 구성에서 중국은 세대별, 한국은 남녀별 구별을 우선시하였고 남성공간이 분화할 경우에는 중국은 정방과 청방으로 공사별로, 한국은 사랑채, 정자, 서재 등 접객성격별로 공간분리가 나타난다.

3. 유교문화권인 중국과 한국에서 가부장권이 중시되어 주택내 남성공간이 중심공간이면서 대외적인 접객공간을 겸하는 것은 공통적이다. 하지만 가장의 지위가 높아지거나 대규모 주택에서의 양상을 살펴보면, 중국주택은 정방 외에 청방이 분리되더라도 정방의 중심성이 유지되지만, 한국주택에서는 중요성이 안채에서 사랑채로 옮겨져 대표성과 위계성을 가진다.

4. 중국의 상속은 재산권·제사권·가부장권을 균등하게 상속하여 주택들이 상대적으로 동질한 위계를 취한다. 반면 한국은 제사권을 중시한 장남우대상속으로 씨족마을을 형성하여 종가를 상위로 지가들이 조영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남성공간은 가족과의 만남을, 한국은 조상과의 만남을 중시하였고, 집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교류가 마을구조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손세관(2001) 『넓게 본 중국의 주택(上下)』, 열화당.
2. 윤일이(1999), 『조선후기 상류주택 사랑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논.
3. 윤일이(2002) 『회재 이언적의 건축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18권 11호, pp.117-124.
4. 荊其敏(1994) 『중국전통민가』, 한동수역, 발언.
5. 劉敦楨, 『中國の住宅』, 鹿島出版會, 소화51년.
6. 保坂陽一郎(1991) 『境界의 形態』, 진경문역, 집문사.
7. 曹火弔(2002), 『中日居住文化』, 司濟大學出版社.

(接受: 2004. 1. 15)